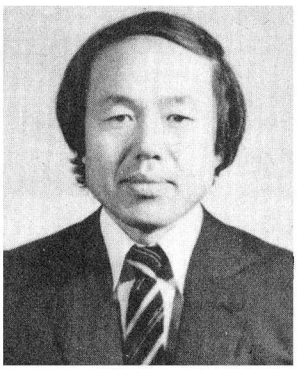
꽁트 초대

아, 숙희



전 상 국
〈소설가〉

● 1940년 강원도 홍천에서 태어나 경희대 국문과를 졸업. 63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소설 「동행(同行)」이 당선돼 문단에 데뷔했다.
22회 현대문학상, 6회 한국문화작가상, 14회 동인문학상을 차례로 수상한 바 있다.
「아버의 가족」「우리들의 날개」「바람난 마을」「식인의 나라」등 작품집과 장편으로「늪에서는 바람이」「불타는 산」등이 있다.

청천벽력이었다. 숙희를 그런 곳에서 만나리라곤 꿈에도 생각 못한 일이었다.

술 한 잔을 마신 김에 친구들과 어울려 어쩌다 찾아간 3류 정도의 카바레였다. 그네를 본 순간 나는 전기에라도 감전된 듯 일시에 온 몸이 오그라들었다.

그네는 선정적인 조명 아래서 어떤 사내의 품에 안겨 흐느적거리고 있었다. 내 눈의 착각이기를 바라며 꽤 오랜 시간 그네의 일거일동을 추적했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물론 그네는 그 또래의 여자들 여럿과 어울려 온 모양이었지만 그네가 주로 그 분위기를 리드하고 있다는 느낌으로 미루어 이미 그런 곳에 한두번 들러본 신출 같지는 않았다.

그네를 본 순간 나는 인수를 생각했다. 숙희의 애인이 인수였던 것이다. 나는 인수를 생각하면 배부터 아팠다.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은 상당한 과학적 근거에 의한 속담인 게 틀림없다. 인수를 통한 내 배앓이는 그런 시샘에서 비롯한 일컬어, 신경성 장염이었던 것이다. 인수의 소식에 접할 때마다 나는 아랫배가 사알살 아파 오기 시작하는 그런 증세로 시달려왔다.

그러나 지금은 달랐다. 숙희를 통해 그의 애인인 인수를 생각해 낸 순간 나는 배가 아픈 대신 온몸에서 맥이 풀려나가는 것 같은 탈진을 맛보았다. 그렇게 허전할 수가 없었다.

인수는 나와 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를 내리 같이 다닌, 이를테면 부랄친구였다. 그렇다고 해서 두 사람이 유별나게 친했던 것도 아니다. 친하기는커녕 어릴 때부터 둘은 되도록 서로서로를 피해 함께 어울리지 않으려 노력하는 편이었다. 그것은 마치 사람들이 거울 앞에서 자기의 치부를 바라보기를 겁내는 것 같은 심리였을 것이다.

두 사람이 너무 비슷한 점이 많았기 때문이다. 둘 다 아버지 얼굴도 못보고 자란 편모슬하였다는 것도 그렇지만 그런 가정환경에 걸맞는 가난을 우리들은 숙명처럼 목에 걸고 자랐던 것이다. 가난한 집 애들이 다 그렇듯 우리는 다소 내성적인 성격에다 세상의 모든 것을 빼딱하게 바라보는 버릇이 있었다.

인수와 나는 다른 아이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편이었다. 아이들이 우리를 업신여긴다고 스스로 그렇게 판단하고는 목을 잔뜩 움츠려 방어자세를 취한 채 밝은 햇빛 속으로 나서기를 꺼렸다. 세상의 모든 것이 우리를 소외시켰다고 생각하면서 그러한 세상에 대해 적대감을 가지고 대했다.

인수와 나는 그런 빼뚤어진 마음으로 서로를 미워했다. 그러나 그 미움을 노골적으로 상대를 향해 폭발시키지는 않았다. 두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경쟁을 시작한 것이다. 우리는 매사를 시샘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무섭게 대결했다.

「인수가 어제 담임선생님 도시락 속에 개구리를 잡아넣었다가 걸려서 매를 맞았다」

인수네 반 아이가 그런 소식을 내게 전해주면 나는 여지없이 배가 아팠다. 그 배앓이를 고치기 위해서 나는 인수가 한 짓보다 더 심한 짓을 해야만 했다.

그때 우리반 담임선생님도 인수네 반처럼 여선생님이었다. 나는 아이들 몇을 데리고 우리 담임 선생님이 들어간 변소쪽으로 달려갔다. 나는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담임선생님이 들어 있는 그 변소문을 열어젖뜨린 것이다. 그 일 때문에 어머니는 학교에 불려가 눈물을 흘리고 돌아왔고, 인수 어머니가 그렇게 한 것처럼 나도 매를 맞았다. 인수도 그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인수도 나처럼 배가 아팠는지 그것까지는 알 수가 없는 일이었다.

「인수 걔, 즈네 반 여자애하구 학교 뒷산에 가서…」

물론 그것은 인수가 퍼뜨린 소문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 소문에 의해 또 배가 아팠다. 나는 인수가 퍼뜨린 소문보다 몇 배 더한 소문을 만들어 퍼뜨렸다. 인수가 그랬던 것처럼 나도 그런 소문을 낸 죄로 하여 담임선생님한테 벌을 받아야 했다.

「야아, 인수가 담배를 피운대더라」

중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 인수는 정말 담배를 피웠다. 나 역시 질세라 담배를 배웠다. 인수가 상급생들한테 몰매를 맞아 이빨이 두 개가 부러져나갔을 때도 나는 배가 아팠다. 내 이빨이 세 대쯤 부러졌어야 배앓이가 나았을 것인데 인수의 그 사건으로 해서 혼이 난 상급생들은 내가 그들에게 불손한 태도를 취해도 몰매를 내리지 않았다. 나는 몰매맞기를 포기한 대신 상급생에게 싸움을 걸어 그의 코에서 피가 흐르게 했다. 인수에게 몰매를 내린 상급생 중의 한 아이였다. 나는 그 일로 해서 인수보다 더 유명해졌다.

인수와 나의 중학교 생활은 그런 자학(自虐)적 몸부림으로 스스로를 무너뜨리기 대결이었다. 인수도 나도 모두 세번씩 무기정학을 맞은 문제아였다.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우리들의 대결의 양상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나 교회에 다니기로 했다」

어느 날 인수가 내게 그렇게 선언한 것이다. 그는 언제나 나보다 한 수 위로서 선수를 치곤 했다. 그의 변모에 대해 나는 심한 배신감을 느꼈다. 무지무지한 배앓이가 시작됐다. 나는 어떡하든 그를 이겨야 했다. 그렇다고 교회에 나갈 수는 없었다. 나는 이를 악물고 공부에 달라붙었다. 공부벌레가 되면서부터 배앓이가 서서히 가시기 시작했다. 물론 그때쯤 인수도 나처럼 공부벌레가 돼 있었다. 우리들이 체득한 것은 우리들의 지긋지긋한 가난으로부터 도피하여 서러움을 보상받는

"그네의 눈빛, 그네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의해 우리들은 가슴을 떨며 허둥거렸다."

길은 그 길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좀더 솔직히 말해, 우리들의 그 변모는 한 여자아이 때문이란 게 옳았다. 우리들이 사는 읍내 마을에 새로 이사온, 우리들보다 한 살쯤 아래인 여자애가 있었다. 조숙한 탓이었을까, 인수와 나는 거의 동시에 그네에게 연정을 품기 시작했다. 그네는 지금까지 우리들이 보지 못했던 것을 가지고 있었다. 착한 것, 아름다운 것— 우리들은 그네를 통해 이 세상을 달리 보기 시작한 것이다. 그네의 눈길이 닿은 것, 그네의 손길이 닿아 어루만져진 것은 이제까지의 모습을 버리고 전혀 새로운 이미지로 우리들에게 다가섰다. 곱상하고 탄탄하고 똑똑 소리가 날 만큼 영민한 여자아이, 그네가 숙희였던 것이다.

「두 사람 모두 내가 교회로 인도하고 싶어」

어느 날 그네는 인수와 나를 만난 자리에서 그렇게 말했다. 인수가 교회에 나가게 된 것이 그런 계기에 의해서였다.

그때부터 인수와 나는 숙희를 놓고 대결을 벌이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네의 눈빛, 그네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의해 우리들은 가슴을 떨며 허둥거렸다.

인수의 변모는 놀라운 것이었다. 그의 학교 성적은 상위 그룹에서도 단연 두드러지게 뛰어나오기 시작한 것이었다.

내 배앓이는 더욱 심해졌다. 나는 날로 의기소침해지기 시작했다. 인수로 인해 시샘의 배앓이는 드디어 내게 심한 열등감마저 생기게 했다. 나는 스스로 숙희를 내 마음 속에서 몰아내는 일을 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무서운 고통이었다. 그러나 해 내야 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인수를 이기는 길이라고 생각한 때문이다. 나는 짐짓 숙희와의 만남을 피했다. 어쩌다 그네와 마주쳐도 외면하게 지나쳤으며 그네가 말을 걸어와도 못들은 척 피했다. 그러한 고통을 통해서 인수로 인해서 아픈 배앓이를 치유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상한 일이었다. 내가 그처럼 고통 속에 멀리하려는 숙희가 자기 스스로 내 곁으로 다가서는 일이었다.

「동정할 필요없어!」

나는 그렇게 그네를 쏘아주었다. 그때 나는 대학진학을 거의 포기하고 있는 상태였고 그 사실을 안 숙희가 내게 힘을 북돋워주기 위해 내 곁으로 다가섰기 때문이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못난 사람은 자기를 학대하고, 자기를 지나치게 비하(卑下)시키는 사람이야」

숙희가 그런 뜻의 말을 했다. 우습게도 나는 그 말에 의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한 것이다. 숙희는 그런 마력을 가진 여자였다. 그네의 그 마력은 인수와 내가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에 들어가기까지 계속됐다.

내가 법과를 택한 것도 숙희 때문이었다. 나는 법관이 되어야 했다. 나는 항상 내가 명판관이 되어 재판을 끝내고 집에 돌아왔을 때 나를 기다리고 있는 숙희를 생각했다.

인수는 정치학과를 택했다. 아마 그 나름의 확고한 신념에 의한 선택이었을 것이다.

우리의 길이요 희망인 숙희는 그네의 뛰어난 음악적 소질과는 달리 가정과를 택했다. 그것부터가 우리에게는 그네를 돋보이게 하는 마력이요 매력이었다. 인수와 나는 우리들의 언덕에 지어진 아담한 주택 속에 그네를 묶어 두는 생각에 탐닉했다. 나는 주방에서 행주치마에 손을 씻으며 나오는 숙희의 모습을 생각할 때마다 살맛이 났다. 우리들의 침실 속에서 그네는 더욱 아름다운 빛으로 타올라 내 눈을 멀게 했다.

나는 숙희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죽음에 앞서 그네를 내 것으로 완전히 소유하는 일이 중요했다. 나는 육법전서에서 눈을 떼어 짙은 연서를 쓰기 시작했다. 내가 쓴 연서는 단 한 통도 그네에게 보내지지 않았다. 그것은 인수를 의식한 자존심이었다. 짐작컨대 아마도 인수도 나와 비슷한 거리를 가지고 숙희를 대했을 것이다.

그러나 언제나 선수는 인수가 쳤다.

「너한테 할 얘기가 있다」

그때 우리들은 논산훈련소에서 함께 신병훈련을 받고 있었다. 배고프고 낯선 그 서러운 곳에서만은 인수와 나의 대결은 휴전상태였다. 그러나 그러한 잠정적 평화를 깨고 인수가 일방적으로 선전포고를 해왔다.

「나 숙희하고 결혼하기로 결심했다」

인수가 내게 한 말이었다. 그는 이미 정치가적 제스처가 몸에 배어 있었다.

「숙희한테서도 그런 말을 듣게 되면 내 진정으로 너희들의 결합을 축하하겠다」

나는 아파오기 시작하는 배를 거머쥐고 고작 그런 말을 했을 뿐이다.

또다시 고통의 시간이었다. 숙희를 내 집의 주방에서, 침실에서 몰아내기 위한 싸움이 시작되었다. 배앓이 증세는 어떻게 해 볼 시간적 여유도 없이 급속도로 악화되어 갔다. 실로 괴로운 군대생활이었다. 내무반 침상에 누워 있으면 숙희의 편지를 읽고 있을 인수의

"숙희는 인수와 결혼하지 않았다. 그네가 택한 남자는 대재벌 2세였다."

얼굴이 떠올랐다. 두 사람이 결혼식장에 나란히 선 모습이 보였다. 내 주방이 아닌 인수의 주방에서, 그의 침실에서 웃고 있는 숙희의 요염한 모습이 악몽이 되어 나타나곤 했다.

결국 나는 인수와의 대결을 통해, 결정적인 내 치부를 만진 뒤 만신창이가 되어 쓰러진 것이다. 그때부터 나는 숙희를 혐오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내 어머니를 비롯한 이 세상 모든 여자에 대한 미움이었다.

인수가 내게 그런 일방적인 선언을 한 뒤 나는 인수와 만나지 않았다. 내 배알이를 치유할 아무런 방법도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아마 인수가 자신의 계획대로 숙희와 결혼을 했더라면 나는 이미 이 세상에 살아있지 못했을 것이다.

숙희가 나를 살려냈다.

숙희는 인수와 결혼하지 않은 것이다.

인수와 내가 아직 군대밥을 먹고 있을 때 그네는 날아가 버렸다. 그네가 택한 남자는 대재벌의 2세였다.

인수와 나는 닭쫓던 개 모양 넋을 놓고 서로의 얼굴만 바라보았다. 내 배알이는 씻은 듯 나았다. 내가 인수의 턱에 결정타를 한 대 먹인 기분이었다.

숙희가 우리에게서 훌쩍 날아가버린 순간부터 인수가 변하기 시작했다. 그는 제대를 하면서부터 곧장 돈을 벌기 위해 눈을 부릅뜨기 시작한 것이다. 정치가가 되겠다던 허황된 꿈을 버린 것 같았다. 어쩌면 정치가가 되기 위해서 돈을 모아야 되겠다고 작심을 했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어떻든 인수는 돈을 벌기 위해서 사람답게 사는 길을 버렸다. 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 버는 일에 열을 올렸다. 그것을 꼭 숙희에 대한 뼈아픈 원한에서 비롯한 것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그는 거의 광적으로 그 일에 빠져 들었다. 많은 사람이 인수의 명석한 머리에 의해 피해를 보았을 것이다. 사람다운 삶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돈을 필요로 하는 그런 돈벌이가 아니라 돈을 통해 사람 대접을 받기 위한, 주객이 바뀐 개처럼 아무렇게나 살면서 돈을 버는 인수였다.

나는 그러한 인수에 대해 옛날처럼 대결의식이 생기지 않았다. 인수가 드디어 영동에 땅을 얼마를 가지고 있고, 그가 시작한 오파상회가 날로 번창하여 이제 제법 큰 규모의 회사로 발돋움하기 시작했다는 소리를 전해 들으면서도 나는 배가 아프지 않았다.

비록 법관이 되지는 못했지만 꽤 큰 회사의 과장자리에 앉아, 조금은 거드럭대며 살 수 있는 오늘의 내 현실에 만족했을 뿐이다. 여우 같은 마누라에 토끼 같은 자식이 두엇 딸린 가장으로서 나는 이미 인수의 삶은 물론 한때 내 인생항로에 결정적 키이 노릇을 해 준 숙희에 대해서도 까마득 잊고 지내는 터였다.

설사 인수가 대재벌이 되어 내 앞에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나는 이미 배가 아프지 않을 만큼 속세에 닳고 닳은 몸이었던 것이다.

카바레에 왔던 숙희의 패거리들이 우루루 일어서고 있었다. 숙희는 술까지 취한 것 같았다. 십몇년전 대재벌의 아들과 결혼한 신데렐라 숙희의 모습은 이제 아무데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 패거리들의 옷치장이나 거동들이 숙희의 현실을 한마디로 잘 나타내 주고 있었다.

나는 지체없이 그네의 앞을 막아섰다.

「숙희씨!」

신파극에서나 보는 그런 장면이었다. 그러나 숙희는 나를 빤히 쳐다보더니만 전혀 생경한 얼굴로,

「이분, 술 취하셨나 봐!」

「숙희씨, 납니다. 나 모르시겠어요?」

나는 몹시 당혹한 나머지 그렇게 허둥거렸다.

「이보세요. 저는 댁에서 찾고 있는 그 여자가 아네요!」

그네는 쌀쌀맞은 눈으로 나와 내 동료들을 훑어보며 지나쳐갔다. 그 패거리들이 와하하 웃음을 터뜨리고 있었다.

「어이, 김형, 저 여자 정말 아는 여자야? 왜 그래?」

동료들이 또한 그 여자들처럼 와하하 웃어댔다.

내가 숙희의 인생 파탄 내역을 들은 것은 며칠 뒤 인수에게서였다.

「나도 그냥 들은 얘긴데 말이야, 숙희가 오년 전인가 이혼을 당했다는군. 거, 왜 가정파괴범이란 놈들 있잖아. 강도로 들어가서 유부녀를 추행하는 그런 놈들… 자세한 건 모르지만 아마 그런 일로 억울하게 이혼을 당했다는 거야. 그 지경 됐으면 여자 신세 끝이 아닌가. 길바닥에 굴러 다니는 낙엽꼴이지 뭐. 지깟 것이 어쩔 것이여?」

인수의 표정은 지극히 담담했다. 그때 인수네 그 넓은 거실의 한쪽 주방으로부터 우아한 옷차림을 한 인수의 부인이 차를 끓여 내오고 있는 중이었다. 정계의 유력한 거물 송모씨의 외동딸과 인수가 결혼한 것은 불과 오년 전의 일이었다.

카바레에서 본 숙희와는 너무나 대조적인 품위를 갖춘 인수의 부인을 본 순간 나는 심한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다.

배알이 증세는 아니었다. 나는 가슴 한가운데로 뾰족한 송곳 끝이 파고 드는 것 같은 아픔이었다. 아, 숙희.